

Simulation

수업이 끝난 학교 앞은 장이 선 것처럼 왁자지껄했다. 정문 앞에 즐비한 문방구에 쫓그려 앉은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에 접한 게임이 벽돌깨기였다. 막대기 하나로 하얀 도트 하나를 받아 치며 맞은편 벽돌들을 하나씩 깨 나가는 게임이었다.

다음에 출시된 탱크라는 게임은 차원이 달랐다. 벽돌깨기가 작은 도트 하나를 놓쳐버리는 아쉬움이었다면 탱크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였다.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 탱크가 파괴되었다. 아주 단순한 2차원 평면이었지만 우리는 적의 탱크를 부수면 환호성을 질렀고 내 탱크가 터지면 가슴을 움켜쥔 채 맨바닥을 뒹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은 화려해졌고, 나는 우주를 날았으며 2차 세계 대전의 전장을 누볐다. 사춘기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다가 먹살잡이에 주먹질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컴퓨터 게임과 함께 자랐다.

우리 집은 꽤 풍족한 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이 나에게 컴퓨터를 사 주셨다. 컴퓨터 본체가 담긴 박스를 뜯어 내며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곧 다가올 미래에는 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야. 게임만 하는 것은 너에게 큰 도움이 못돼. 넌 언제나 그 뒤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주도할 사람이 되는 거야."

물론 나는 이제 게임을 내 방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어쩐지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나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체질로 태어나신 분이다. 어떤 사물이든 다른 시각과 앞선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기에 사업에 성공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 또한 항상 아버지를 닮고 싶었다.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덕에 다른 아이들은 접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접할 수 있었다.

게임은 점점 현실과 닮아 가기 시작했다. 방안 컴퓨터 앞에서 전쟁을 치렀고 F1 드라이버가 되었으며 범인을 찾아 다녔고 도시를 설계했다. 낮에 근무를 마치고 오면 밤에는 또 다른 나의 삶이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영웅도 되고 실패한 삶이 될 수도 있었다. 내가 경험하는 게임 속 그리고 실제 사이에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었다. 현피가 횡행했고 GTA 를 보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중 내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월드 오브 워크레프트에서 발생한 오염된 피 사건이었다. 나도 이것이 과연 현실과 무엇이 틀린지 헷갈리는 최초의 경험이었던 것 같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던전 내부에서만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버프가 버그로 인해 외부 세계에 퍼지면서 시작되었다.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저들은 치료활동을 하고 민병대를 조직했으며 일부는 외곽으로 도피를 선택했고 악의를 품은 몇몇은 고의로 감염을 확산하고 가짜 치료제를 팔았다. 그곳의

작동 방식은 이미 현실 세상의 작동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의 것까지 탐닉하기 시작했다. 원리를 알아가고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중독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게임 프로그래밍과 설계 등을 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나는 꽤 성공적이었다. 결국 내 회사를 차렸고 게임업계의 선두로 올라섰다.

나는 일찍이 VR의 잠재력을 크게 보았다. 게임이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IT 기술의 향상은 나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나는 몰입형 VR 설계의 대가가 되었다.

IT 기술의 향상이 나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면 2030년을 전후해서 개발이 완료된 AGI(범용인공지능)는 부스터 로켓과 같았다. 이제 어디까지 인지 한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AGI(범용 인공지능)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나서는 내가 할 일은 없었다. 모든 프로그래밍은 AI가 했고 소재의 선택이나 서사 설계도 AI가 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알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기술적 특이점이 결국에는 와버렸고 이때부터 기술은 해독 불가능한 마법의 형태가 되었다.

로봇기술의 발달과 AGI의 완성은 진정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해방을 가져왔다. 로마시대에 시민계급보다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계급이 늘어나자 생산성은

극대화되었고 물자는 풍족 해졌다. 로마의 황제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계급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 바로 빵과 콜로세움이었다.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난 뒤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물론 스케일 면에서 로마시대와 비할 바는 아니었다. 로마시대에 시민계급에게 빵과 콜로세움을 줬다면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는 휴머노이드가 모든 것을 대신했고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과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되었다. 이중에서 VR은 로마시대의 콜로세움을 대신할 강력한 엔터테인먼트였다. 사람들은 휴머노이드의 보살핌을 받았고 정서적인 면도 휴머노이드에게 맡겼다. 그리고 VR을 통해 세상을 체험했고 감각과 욕구를 충족시켰다.

어떤 사람은 이상향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디스토피아라고 말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와버린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나도 자의 반 타의 반 은퇴를 선택해야만 했다.

VR 업계의 거두였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배당금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인생은 언제나 풍족하고 만족스러웠다. 석기 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지리함을 건너뛰고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AI 시대 그리고 특이점까지 불과 반세기 만에 다 섭렵한 축복받은 세대의 정점에 내가 위치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삶이었다.

나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다.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죽음 자체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내

주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내 곁을 떠났다. 와이프가 떠났다. 자식들까지 앞세워 보냈다. 심장 교체, 인공관절, 근육과 피부 교체 같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평균 이상으로 살고 있었다.

고독이 나를 엄습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휴머노이드는 말동무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으며, 심지어 연인이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VR로 욕구를 충족했고, 가이노이드와 안드로이드의 등장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나는 구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내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육신의 고통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제는 진정 쉬고 싶었다. 운이 좋다면 존재론적 회귀에 닿고 싶었다.

나는 결국 어떤 수명 연장 시술도 더는 받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도 이제 죽음을 맞아야 한다. 내 결심에 사람들은 걱정과 격려를 함께 보냈다.

기능을 다한 NPC로 살아갈 것인가, 존재로 돌아갈 것인가. 죽음은 소멸인가, 회귀인가.

나는 안락사를 결정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행사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설렘이었다. 자궁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계 내부는 따뜻하고 안락했다. 이제 이 순간만 지나면 지긋지긋한 육신의 고통도, 차가운 우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도 막을 내릴 것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던 것인지, 마취되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감각

속에서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의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무척 당황한 얼굴들이었다. 나는 살아 있었다.

안락사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보다 더 낭패인 것은 내 몸 상태였다. 안락사 실패 이후 내 몸은 더는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떤 생명 연장 시술로도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없었다. 현재의 몸을 완전히 버리고 사이보그에 의식을 업로드하자는 제안도 받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고 몹시 지쳐 있었다.

두 번째 안락사마저 실패했다. 나는 무언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절망에 휩싸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은 약물과의 체질적 특이성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38 구경 스미스앤웨슨 리볼버를 꺼내 총알을 하나씩 채웠다. 단 한 발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의식을 치르듯 여섯 발을 모두 채워 넣었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약물의 체질 특이성 따위가 끼어들 틈조차 없는 방식이다.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미련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눈앞에 섬광이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누구신가요?”

“할아버지, 저예요. 제시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눈동자가 아주 아름답군요. 내 눈동자도 예전에는 당신과 같은 색이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할아버지.”

“제 아내를 좀 불러주세요. 몸이 매우 불편하네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분은 잠깐 나가셨어요. 나중에 돌아오실 거예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꺾어버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랑 할아버지랑 같이 불렀던 노래 들려드릴까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와 같이 놀던 날,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메기 내 사랑하는 메기여.”

“아, 당신 이제 기억이 나요. 당신은 내 간호사군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짐짓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일단 누워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자욱한 안개가 걷히듯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간호사 안드로이드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이노이드였다. 그녀는 재빨리 내 몸 상태를 스캔하더니 나를 침대로 옮겨 눕혔다. 오른쪽 측두부 안쪽에서는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손을 가져다 대도 어떤 구멍이나 피의 흔적은 없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무릎을 꿇은 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 대신 몸을 틀어 돌아누웠다.

“젠장,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제발, 이걸 저주야!”

숨이 막혔다.

“난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 내 아내가 죽은 기억, 내 아이들이 죽은 기억... 이제 그 기억들도 삭제하고 싶어. 제발!”

그녀는 몸부림치는 내 몸을 감쌌다. 그리고 내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대었다.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가이노이드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고 나는 점차 진정되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면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원리를 알아내야겠다는 욕구가 샘솟았다.

그 무렵, 완전몰입형 VR 게임에서 한 유저가 로그아웃 금지 설정 때문에 게임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로그아웃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게임에서 사흘 동안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탈수로 죽었다. 그것이 단순한 설정 실수였는지, 현실로부터의 영원한 도피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가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이 바로 로그아웃 금지 버그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영원한 게임 속 존재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딘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데아 속에서, 진짜 나의 존재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나는 빨리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해야 한다. 적어도 내 진짜 존재가 굶어 죽기 전에...

나는 급히 내가 만들었던 게임들의 설계도를 뒤지기 시작했다. 몰입형 VR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었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단순한 유저 설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나는 이제는 구닥다리가 돼 버린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와서 이 게임에 접속할 유저가 있을 리 만무했다. 낯은 세계 안에는 인공지능 NPC 들만 의미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식은땀이 흐르더니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조이스틱을 쥔 왼팔에 힘이 빠졌고, 곧 정신이 희미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듯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나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제 죽음의 되새김질은 내 일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오래전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을 꺼 둔 상태였기에 응급의료진의 개입도 없었다. 심장마비에서도 또 살아남은 것이다. 극심한 흉통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고글을 벗었다.

게임은 자동 로그아웃 상태였다. 분명 나도 그 유저와 똑같이 로그아웃 금지 코드를 활성화한 채 VR 에 들어갔다. 그런데 기록상 나는 자동 로그아웃되어 있었다. 나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 기록을 분석했다. 내가 로그아웃된 시점의 기록은 단순했다.

상호작용 부재

1 시간 경과

강제로로그아웃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이 파이스에게 말했다.

“아무도 저 달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닐스 보어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대답은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급히 로그아웃 금지 세팅으로 게임을 다시 시작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확신이 들었다. 게임 속으로 들어간 나는 세계관의 맨 끝자락, 컴퓨터가 계산조차 하지 않는 자리, 랜더링으로만 처리되는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시간은 몹시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다. 생체기능 감시 시스템을 복구하지 않은 채 게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기 때문이다. 로그아웃이 실패하면 나는 굶어 죽는다. 하지만 나는 불사의 버그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정말 죽을 수는 있는 걸까. 로그아웃의 조건은 관계의 단절을 통한 존재론적 소멸인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인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러는 사이 시스템 알람음이 울렸고, 나는 VR 에서 로그아웃되었다.

나는 드디어 로그아웃 금지 버그를 깰 방법을 찾았다.

나는 이미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집 안을 돌아다니는 건 NPC 같은 구닥다리 휴머노이드 한 대뿐이었다. 그것도 기능은 대부분 제한돼 있었다. 청소와 요리, 그리고 때맞춰 약을 건네는 기능만 남겨 두었고 네트워크 연결은 모두 차단해 놓았다. 내가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간호사 가이노이드뿐이었다. 문제는 그것이었을까. 나는 그녀가 오는 날만 기다렸다.

그녀는 원래보다 하루 일찍 찾아왔다. 아직 내 결심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 방문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친절하게 안부를 묻고 내 머리맡에 앉았다. 섬세하게 채혈하는 그녀의 손은 오히려 그녀가 안드로이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무리 정교해도 완벽할 수는 없었다.

이 고리를 끊으면 나는 로그아웃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탁자 위에 가져온 장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내 손에 쥔 채 이불 밑에 숨겼다. 그녀는 검사를 하면서도 쉼 없이 말을 걸어왔다.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그녀가 뒤돌아볼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 부드러운 미소를 내게 보내려는 순간, 내 리볼버가 불을 뿜었다. 그녀는 툭 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액체가 바닥의 흙을 타고 흘렀다. 붉은색이었다. 그럴 리 없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이 간호사 일을 할 리가 없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그녀 곁으로 기어갔다.

피였다. 분명 사람의 피였다.

나는 그녀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로봇인 것은 그 팔뿐이었다. 그녀의 팔에 장착된 생체 이식형 통신 장치에서는 배경화면이 아직도 한 장씩 넘어가고 있었다. 밝게 웃는 그녀의 사진이 하나둘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사진이 바뀔 때마다 숨이 막혀 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사진이 내 눈에 박혔다.

내 사진이었다. 젊었던 내 모습이 보였고, 그 품 안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나와 똑같은 짙은 갈색 눈동자였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내 품에서 피를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치매였다. 그래, 치매였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와 내 품에 안겨 창백해진 그녀 사이에는 오직 짹짹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났다.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눈부신 빛을 따라 걸었다. 눈앞이 온통 새하얗게 지워질 무렵,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살아난 것인가?

눈을 뜨자 한 여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조사관처럼 보이는 사내들과 의사들이 오가고 있었다.

난 또다시 살아났다. 절망보다는 체념이 먼저 밀려왔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후두부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리고 이 낯선 여인이 왜 나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는지, 나는 잠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통증은 심했지만 손끝과

발끝, 몸의 여러 감각은 낯설 만큼 생생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아마도 몇십 년 전에 느껴 보았던 몸의 감각일 것이다.

“여보, 그냥 누워 있어요. 뒤로 세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도 내가 바로 도착해서 뇌출혈은 제때 치료했어요. 이제 걱정 말고 좀 쉬어요.”

나는 낯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누구세요?”

내가 묻자 순간 목소리부터 전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손과 팔을 바라보았다. 주름과 검버섯 대신 혈관이 도드라진 근육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나예요. 당신의 부인.”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하이퍼몰입형 VR 에 너무 오래 머문 후유증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차 회복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야 상황이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로그아웃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낯선 곳에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지금 내게 가장 급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언제 나를 발견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쓰러지고 얼마 안 돼 제가 도착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나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왜 하필 그날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까.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 묻자 의사가 다시 말했다.

“VR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남편분은 아직도 그것을 현실이었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 품에서 무너졌다. 로그아웃 직전, 내 품에 안겨 있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얼마나 오래 VR 속에 있었나요?”

“이곳 시간으로는 약 48 시간, 그곳 시간으로는 203 년이었죠.”

“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온 건가요? 아니면 시뮬레이션 체험을 하고 온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시뮬레이션 체험을 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의 내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 모호한 대답에 짐짓 짜증이 났다.

그곳은 모든 것이 평안한 곳이었다. 질병도, 전쟁도, 갈등도 없었다. 사람들은 오로지

삶을 통찰하고 영혼의 단계를 끌어올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

내가 경험하고 온 곳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기본소득을 받으며 텅 빈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욕구는 몰입형 VR 속에서 해소되었고, 사람을 직접 만날 일도, 그럴 필요도 없이 휴머노이드의 보살핌 아래 살아갔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온화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 아무리 진화한 초몰입형 VR 이라 해도, 그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었다. 그들이 찬미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VR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족, 친구, 애완견과 재회했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혹시 그녀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이었다. 나는 그녀가 NPC 였다고 믿기로 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지워 버린 척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의 VR 장치는 당분간 버그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나 역시 너무 긴 세월을 체감하고 온 상태였기에, 한동안은 이곳의 평온함에 머무는 편이 나았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몰입형 VR 설계의 대가였고, 지금의 초몰입형 VR 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며 이곳의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버그의 잔향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나는 코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설계자들도 내

사건 이후 이 버그를 잡기 위해 작업 중인 듯했다. 그러다 나는 이 버그가 '이전 게임의 기억을 다음 게임으로 이어 주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이 단순한 버그인지, 아니면 설계자의 의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내면 설계를 들여다보는 데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가 아침에 서두르며 내게 말했다.

"여보, 아직도 밖에 나가기 싫어?"

그녀가 나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다.

"응. 아직은 조금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자기는 아직 좀 더 쉬어야 해. 나는 모임에 다녀올 테니까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해 줄게."

"그래. 잘 다녀와."

모든 것은 완벽했다. 그녀가 이 문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또 하나의 삶을 얻는다. 설령 그 삶이 길어지든, 중간에 염증이 나든, 결국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로그아웃하면 된다. 나는 기억을 간직한 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제시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은빛 헬멧을 머리에 썼다.

따뜻한 물속을 유영하며 팔다리를 뻗었다. 좁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부드러운 선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고, 낮선 목소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도 간간이 들렸다. 그러다 무언가에 밀려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이 머리를 짓눌렀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나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터져 나온 울음을 통해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겨우 숨을 돌리고 눈을 뜨자 젊은 부부가 나를 애뜻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의식의 발바닥은 여전히 이데아의 땅 위를 밟고 있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하는 젊은 부부 곁에,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여자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농가처럼 보였다. 그들의 옷차림을 보아하니 조금은 과거인 듯했다.

잠시 실망했지만 곧 다시 생각했다.

‘어차피 모든 지식은 내 머리에 남아 있다. 이런 환경이라 해도 성공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거야.’

조금 먼 과거라면 노벨상쯤은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젊은 부부는 온화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도 조심스럽게 나를 쓰다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자극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따뜻한 나날을 보냈다. 어머니와 누나는 나를 업은 채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농장 주변을 거닐며 꽃을 꺾었다. 그녀들의 등에 업혀 바라본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다. 소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평야에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외딴 곳이었지만 그만큼 더 아름다웠다. 아버지가 가끔 마차를 타고 우유와 고기를 팔러 이웃 마을에 다녀오는 것 말고는 사람들의 왕래도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심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꼼꼼히 가늠해 보곤 했다. 별다른 실마리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주 가까운 시대는 아니라는 점이 나를 안심시켰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지금은 그들의 보살핌과 사랑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는 내게 ‘아빠’, ‘엄마’라는 말을 가르치려 애쓰는 듯했다. 내 눈을 바라보며 같은 단어를 반복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니 이곳이 아마 독일이나 폴란드 어딘가라는 짐작이 들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들판 저편에서부터 엔진음이 들리더니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아버지는 급히 누나에게 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다.

방 밖에서는 둔탁한 군화발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곧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탕, 하고 총성이 터졌다. 어머니의 비명이 이어졌고, 식탁이 넘어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뒤엉켜 들렸다.

누나는 급히 나를 다락 안에 숨기고 이불을 덮었다.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퍽, 하는 소리가 아마도 어머니가 쓰러지는 소리였을 것이다. 누나는 자기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을 삼켰지만, 눈물은 이미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 위로 이불을 다시 덮고 그 위를 큰 나무 상자로 막았다.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나는 소리만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가 들렸다. 곧 몸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급히 달아나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Da ist noch jemand!"

군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곧 몇 발의 총성이 뒤따랐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정신이 흩어졌다.

집 안을 뒤지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 뒤 군인들이 집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 거대한 폭음이 터졌다. 파편이 내 온몸을 찢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 들판 위 농가의 잔해 더미가 아닌 곳에서 눈을 떴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버그는 완벽히 작동했다.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불과 1 분도 지나지 않았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로그아웃 버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기억 삭제 과정 없이 다시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은 확실히 증명되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경험한 삶은 너무 우발적이었다. 누나가 도망쳐 살아남았다면, 나는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다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은빛 헬멧을 머리에 썼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온몸은 절구통 속에서 반죽되듯 짓눌리고 있었다. 양수를 빠져나온 나는 가까스로 숨을 쉬기까지 몹시 힘이 들었다. 목청을 터뜨려 울어 보려 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 몸은 제멋대로 따로 놀았고,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신생아의 몸짓이 아니었다. 겨우 눈을 떴을 때, 한 쌍의 폴리네시안으로 보이는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산파로 보이는 늙은 여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주절거리며 합장을 했다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기를 반복했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내는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어머니는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몸의 육신거림이 낫설지 않았다. 그렇다. 바로 그 농가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의 사지의 찢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감각마비가 지금의 몸과 이어져 있었다. 뭔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다 어머니는 내 볼에 입을 맞추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물은 내 뺨을 타고 불과 귓볼을 지나 어깨 위로 미끄러졌다. 아버지도 우리를 함께 끌어안았다. 나는 외면하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다시 눈을 떴다. 중앙에서는 모닥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듬고 있었다. 깨자마자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나를

어르다가, 그마저도 소용없자 내 입에 젖을 물렸다. 내 불근육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고, 따뜻하고 짭짤한 모유가 목을 타고 흘렀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가 곁에 앉아 있었고, 머리 장식이 화려하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노인 하나와 아까의 산파도 눈에 띄었다. 그 밖의 사람들 역시 심각한 얼굴로 둘러앉아 있었다.

그때 족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긴 말을 쏟아냈다.

“He tohu kino nō ngā atua kei runga i tēnei tamaiti.”

“E le o le taimi muamua ua aumaia e le mala ni faailoga leaga i lo tatou nu’u. E lei leva atu na tatou leiloa ai tagata i le afa. Afai tatou te lē amana’ia lenei faailoga, e ono oo mai se mala e sili atu ona mata’utia. O lea ua filifili ai le nu’u e tu’u atu lenei pepe i le finagalo o atua.”

나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어떤 판결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고, 아버지는 항의하듯 샷대질을 하며 격분했다.

건장한 사내들이 아버지의 팔다리를 붙잡았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어머니는 몸을 구부려 나를 감싸 안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산파는 다시 무슨 주술을 외우는지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보며 합장했다. 이어 기분 나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풀로 엮은 집 안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여자들까지 몰려들어 어머니와 나를 끌어내려 했다.

피가 내 얼굴까지 튀었다. 방 안은 삼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산파의

비명소리가 뒤편에서 들려왔다. 아버지는 단검을 꺼내 한 사내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피가 분수처럼 방 안에 흩뿌려졌다. 어머니를 잡아당기던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아버지와 실랑이하던 남자들 역시 놀란 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얼어붙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아버지는 모닥불 하나를 움켜쥐고 풀로 만든 벽을 향해 던졌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는 그 틈을 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달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뒤쫓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끌고 달렸지만, 추격자들은 금세 따라붙었다.

아버지는 방향을 틀어 비탈진 산길로 내달렸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따라왔지만 점점 힘에 부쳐 보였다. 아버지는 그제야 나를 들쳐 업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내 몸은 아버지의 넓은 어깨 위에서 힘 빠진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숲을 빠져나오자 휘영청 밝은 달 아래, 바닷물이 출렁이는 절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뒤편에서 들려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하나로 포개졌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내 얼굴 위로 똑똑 떨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검은 물이 넘실거리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그 무중력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로 껴안은 두 사람 사이에 끼인 내게 진한 땀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고요한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 또 로그아웃인가?

침묵을 깨는 강한 파열음이 내 귀를 때렸다. 이어 둔탁하고 텅텅한 소리가 물속에서

길게 올렸다. 널빤지로 얻어맞은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척이 느껴졌고, 어머니의 손이 서서히 풀리더니 나는 유명하듯 떠밀렸다. 아버지는 먼저 내 몸을 붙잡았고, 다시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다.

벼랑 아래 바닷가는 온통 날카로운 바위로 가득했다. 내 몸에도 한두 군데 찢기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나를 안아 벼랑 아래 움푹 파인 틈에 눕혔다. 그리고 어머니를 들어 다시 내 옆에 눕혔다. 코에 귀를 가져다 대더니, 곧 황급히 어머니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압박했다. 킁 소리를 내며 물을 뿜어낸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어머니는 급히 나부터 찾아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다.

저쪽 해변에서 불빛들이 반짝이더니 곧 이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안고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배에는 햇불을 든 사내들이 올라타 있었고, 바로 앞까지 와 어슬렁거리다가 이내 사라졌다.

배들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우리를 그곳에 두고 어딘가로 헤엄쳐 나갔다. 한참 뒤, 아버지는 어둠을 뚫고 카누 한 척을 노 저어 나타났다. 어머니는 나를 안고 물을 건너 카누 위에 올라탔고, 우리는 이른 달이 지고 난 칙흑 같은 밤바다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정신없이 노를 젓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새벽 어스름빛 속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어머니는 노니 앞을 으깨 내 몸의 상처에 바르고, 아버지의 상처에 바른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도 그것을 발랐다. 낮이 되자 뜨거운 햇살이

송곳처럼 온몸을 찔렀다. 어머니는 큰 앞사귀로 내 몸을 가려 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아버지의 등은 소금기로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의 젖은 점점 째조름해지더니,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불근육을 움직여도 잘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노를 저은 끝에 탈진한 채 누워 있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무풍지대에 갇힌 듯했다. 아버지가 준비해 온 물과 식량은 금세 바닥이 났고, 떠오르는 햇살과 하현달의 교대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번갈아 물속 깊은 곳으로 잠수했다가 떠올랐지만 늘 빈손이었다. 그야말로 바다의 사막 구간이었다. 나도 정신이 점점 몽롱해져 갔다. 잘하면 이틀쯤 뒤 자연스럽게 로그아웃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애초에 떠올렸던 준비된 죽음과는 달랐다. 리볼버나 약물을 상상했지, 아사라니.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잃은 지 얼마쯤 되었을까. 입술에 째짤한 피비린내가 닿았다. 눈을 떠보니 입술이 말라 부르튼 어머니가 손가락의 피를 힘주어 짜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를 내 입술에 적셔 주고 있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힘이 없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시 있는 힘껏 목청을 터뜨리자 아버지가 흠칫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니의 잘린 손가락을 본 아버지는 급히 그 손가락을 움켜쥐고 지혈했다.

나를 감싸 안은 두 사람의 머릿결이 살짝 흔들렸다. 바람이었다. 드디어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는 재빨리 조그마한 돛을 끌어올렸다. 우리는 조금씩 거칠어지는 바다 위를 헤쳐 나갔다.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재빨리 코코넛 물통을 작은 돛 아래에

가져다 댔다. 빗물은 뚝을 적시고 모이다가 코코넛 물통 속으로 졸졸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젓가슴 사이로 흐르는 빗물을 모아 분주하게 내 입에 넣어 주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이 이렇게 짜릿한 쾌감일 줄이야.

우리는 기뻐할 틈도 없이 거대한 폭풍우에 맞닥뜨렸다. 작은 앞사귀 같은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고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 몸을 자신의 몸에 밧줄로 단단히 묶은 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였다. 아버지는 뚝을 거두고 노를 저어, 배가 파도를 정면으로 받게 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와 바람 앞에서는 너무도 사소한 몸부림이었다. 이제 로그아웃되면 된다. 아사보다 익사가 나은 건가?

나는 어느새 또 의식을 잃었다. 몸이 아직도 출렁이는 걸 보니 여전히 배 위인 듯했다. 따뜻한 햇살이 내 볼을 비추고 있었고, 문득 등 뒤로 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졌다. 모래였다. 나는 육지 멀미를 하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뜨자 어머니는 나를 보며 방긋 웃었다.

아버지는 코코넛을 따서 쪼갰고, 어머니는 그것을 내 입술에 적셔 주셨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불을 피웠고, 우리는 오랜만에 단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육지 멀미는 3일 정도 계속되다가 겨우 가라앉았다.

그곳은 무인도였다. 작은 섬을 한참 둘러보고 돌아오셨는지,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어머니에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다. 어머니도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괜찮다는 듯 아버지의 땀을 닦아 주었다.

작은 섬이었지만 세 식구가 살아갈 만한 물과 식량은 구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무를 해 왔고, 어머니는 먹을 만한 것을 찾아다니셨다. 어머니 등에

업혀 있을 때마다 내 사지가 조금만 덜 요동쳤으면 싶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내 팔다리 때문에 어머니는 여간 힘드신 게 아니었다.

내 몸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야속하게도 나는 계속 자라났다. 어느새 내가 어머니 몸집보다 더 커졌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번갈아 나를 등에 들쳐메고 모든 일을 하셨다. 무인도에는 베이고 찢릴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풀로 엮어 만든 집에 나를 두고 가실 법도 했지만, 두 분은 대부분 나를 업은 채 밖으로 나가셨다.

내게는 한 가지 가장 좋은 시간이 생겼다. 아버지 등에 업혀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때만은 아버지가 내 무게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고, 나도 숨 참는 법을 익히며 물속을 자유의 세계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내 사지는 여전히 제멋대로 움직였지만, 물속에서만은 내가 물고기가 된 듯했다. 아버지는 조금씩 내 몸을 놓아 주며 물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떠다니게 하셨다. 그 순간만큼은 몸을 감싸고 있던 고통도 사라지는 듯했다. 실제로 그것은 내 몸의 치유에도 도움이 되었다. 아주 더디지만,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나는 자라면서 어눌하게나마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태양의 움직임과 별자리로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다. 아버지가 테슬라 주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램이 헛웃음처럼 흘어졌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조금 특별한 아이로 여기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말로 이 작은 무인도의 평화를 깨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내 생각과 감각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때부터였던가. 아버지는 다시 뗏목을 짓기 시작하셨다.

그 일은 나를 몹시 불안하게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 말이 통할 리 없었다. 두 분은 이미 자신들이 죽고 난 뒤의 나까지 계산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뗏목을 만드는 데 매달리셨다. 지난번 경험 때문이었는지, 이번 뗏목은 매우 크고 정교했다.

나의 안전한 고립이 깨지는 순간, 나는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곧 이 몸을 이끌고 로그아웃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물론 현실의 저녁이 되면 아내가 돌아와 나를 강제로 로그아웃시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겨우 7 살이었다. 아내가 돌아올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나는 아직 10 분의 1 도 살지 못한 셈이었다.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한사코 나가기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손놀림은 더욱 바빠졌다. 1 년이 지나자 마침내 뗏목이 완성되었다. 예전의 앞사귀 같은 배에 비하면, 몇 달은 버틸 것처럼 튼튼한 뗏목이었다. 나는 점점 가슴이 조여 왔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티뿌리를 캐 오코레하오라는 술을 만드셨다.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설렘과 기대로 좀처럼 잠들지 못한 채, 무인도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만끽하셨다. 코코넛 술잔이 오갔고, 두 분은 만취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지셨다.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무인도의 삶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로그아웃은 적어도 60 년은 미뤄질 터였다. 나의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무 타는 매운 냄새에 잠이 깼다. 새벽 미풍에 날린 불씨가 풀로 만든 집 한켠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안쪽에서 주무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길은 점점 아까 마시던 오코레하오 쪽으로 번져 갔고, 이내 확 치솟았다. 아무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도, 완전히 만취하신 듯 미동도 없었다.

내 머릿속은 프로그래머답게 미친 듯이 연산을 시작했다. 내가 죽어도 부모님이 살아 있으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럼 나는 화상의 고통까지 떠안고 살아야 한다. 반대로 이 불을 그냥 두면 부모님은 죽는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기어가 물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이번만큼은 내가 스스로 로그아웃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 몸을 불길 속에 던졌다. 맨살로 불 위를 구르고 또 굴렀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피부를 벗겨 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며 계속 몸을 굴렀다. 연기는 자욱해졌고 살갗은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숨이 막혀 왔다. 불길은 이미 벽을 타고 천장까지 번져 있었다. 와르르, 불붙은 천장이 무너져 두 분의 몸 위를 덮쳤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끝내 미동이 없었다. 이미 연기를 들이마신 것 같았다. 나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눈부신 흰빛을 따라 유명하듯 떠다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섬에서 치솟는 불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조용히 눈을 뜨고 주위를 바라보니 낮익은 내 방이었다. 아직 한낮의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고, 은은한 바람이 그 빛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리클라이너에 누운 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나가 봐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부모님을 찾아 나섰다. 광장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애완동물들과 재회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랑과 기쁨으로 환했다. 백발의 노인이 젊은 숙녀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안겼고, 중년의 여성이 사춘기 소년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경계를 허물고, 마치 하나의 의식으로 이어지는 물방울들 같았다. 북극해의 물과 나일강의 물이 한데 섞여 구름이 되듯.

한참을 찾은 끝에 저편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물론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결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단박에 그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도 나를 보더니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큰 미소를 내게 보냈다. 그는 커다란 팔을 벌려 나를 안아 주었다.

“이게 웬일이냐. 정말 아름답구나. 팔다리가 이렇게 튼튼하다니.”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장난스럽게 팔다리를 짹 뺀어 옆돌기를 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번쩍 들어 업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어지럽구나.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알았으니 제발 내려 주거라.”

나는 크게 웃으며 아버지를 업은 채 광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아니에요. 아직 어림도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업고 다니셨는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아주 많이 어지러웠다고요.”

등 뒤에 업힌 아버지가 말씀을 멈추자 내 목덜미로 따뜻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기쁘지 않으신가요?”

“기쁘지. 기쁘단다. 하지만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켜 주지 못했어. 얼마나 뜨겁고 아팠니.”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불을 끄지 못해서 오히려 더 죄송한걸요. 저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와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된 게 아버지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서 다시 만났잖아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도 아직 못 만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지금 위독하시단다.”

‘위독’이라는 말이 어쩐지 낯설게 들렸다. 전쟁도, 기아도, 갈등도, 질병도 없는 이 세상에 아직 죽음이 존재한단 말인가?

우리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로 갔다. 어머니는 감격하셨는지 내 팔다리를 연신 매만지셨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울고 또 웃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얼굴은 누가 봐도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안긴 어머니의 품에서는 내가 한때 먹었던 모유의 향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마치 다시 아기가 된 것처럼 한없이 그 품에 머물고 싶었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어머니는 평온해 보였다. 거친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모성의 힘이 그 평온 속에 스며 있었다.

“어머니, 왜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토록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리고 싶구나.”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가 함께 건넌 시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 왜 벌써 가시려고요?”

“그래. 내가 원하면 이곳에 더 머무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할 수는 없단다.”

내 기준으로 어머니는 이제 겨우 일흔이었다. 충분히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다음은 나도 모른다. 또 다른 이데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이데아 속의 게임일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우리는 이 우주를 끊임없이 여행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것.”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손가락을 잘라 내 입에 피를 짜 넣으시던 어머니의 힘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두려움 없이 우주를 향해할 준비를 이미 마치신 듯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만남의 기쁨은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충만함으로 번져 갔다. 그러나 단 하나,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를 찾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집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장미향이 코끝을 간질였다. 정갈하게 가꿔진 장미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꽃밭 사이에서 꽃을 다듬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돌아보았다. 예상과 달리, 백발이 아름다운 노년의 숙녀가 나를 맞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눈부시게 하얀 주름치마와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그녀의 자태는 원색의 장미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한층 더 우아해 보였다.

이미 초로의 숙녀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그녀가 제시카라는 걸 알아보았다. 갈색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는 분명 제시카의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댔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몸을 숙였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말보다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다. 한참 동안 목구멍에 걸린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당신을 쏜 그 할아버지예요.”

그녀는 놀란 듯 한동안 말없이 고개 숙인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내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

“고개를 드세요. 할아버지.”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도 할아버지를 많이 찾았는데, 이렇게 오시다니요. 저는 이미 많이 늙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젊고 튼튼한 청년이셨군요. 늘 침대에 돌아누운 굽은 어깨만 봤었는데, 이게 웬일이예요.”

그녀는 내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너무 부끄럽고 후회돼서, 찾아올 용기조차 내지 못했어요. 용서해 달라는 말을 듣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은 죄에서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머리를 땅에 박듯 숙인 채 말했다. 발밑의 흙이 곱고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야속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저를 봐 주세요.”

그녀는 내 어깨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깊은 갈색 눈동자와 내 갈색 눈동자가 마주쳤다. 그 눈동자는 마치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전 그때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느끼던 고통과 고독, 절망을 배웠고요. 당신의 그 시니컬한 유머까지도요.”

그녀는 열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이해해요.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재회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만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초로의 숙녀이면서도, 한때 내 품 안에 안겨 있던 아이처럼 보였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널 찾아왔어야 했어. 난 네가 NPC였을 거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속였어.”

깊은 참회의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보며 그윽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 앞에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해 주셨던 것처럼 내 눈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어린 소녀의 잔상은 사라지고, 다시 자애로운 노숙녀의 얼굴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무엇을 배웠나요?”

이곳에서 가장 흔한 인사말은 “무엇을 배웠나요”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흔하게 넘길 수 없었다. 한동안 깊이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인간의 오만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크게 배운 건 사랑이에요.”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나를 안았다.

“그렇다면 이제 더는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은 상대를 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다. 나는 그 태평양 한복판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함에는 힘이 없지만 사랑에는 힘이 있다. 노를 젓던 아버지의 구리빛 근육도,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짜내던 어머니의 모습도, 사랑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불길 위를 온 힘을 다해 뒹굴던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모두는 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이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짧은 해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었다. 그녀는 내 통통 부은 눈두덩이를 한참 바라보았지만, 끝내 이유는 묻지 않았다. 내 볼에 남아 있던 눈물 자국을 엄지로 조용히 닦아 내더니 다시 나를 품에 안았다. 부드럽고 차분한 호흡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의 숨결이 낯설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듯한 감각이 들었다.

나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는 짐짓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기대 어린 표정으로 턱을 괴고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맛있는 저녁이었어. 고마워.”

그녀는 내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예정대로 은빛 헬멧을 손에 쥔 채 리클라이너에 앉았다.

“이번엔 무엇을 배우고 오고 싶어?”

내가 물었다.

“이번엔 사랑의 아픔을 배우고 싶어.”

“그래. 더 많이, 더 깊이 느끼고 배우고 오기를 바랄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껴안은 채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문득, 뜨거운 불길에 닿던 통증이 환영처럼 온몸을 스쳐 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깃털처럼 가볍게 미소 위로 흩어졌다.

나도 은빛 헬멧을 쓰고 리클라이너에 몸을 눕혔다.

옛날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도 즐거워, 자기가 장주인 줄 몰랐다.

문득 깨어 보니 다시 분명 장주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분별이 있는 듯하지만,

이것을 일러 만물의 변화라 한다.

지은이 : 이상훈

E-mail : helpanimal@hanmail.net

2026.4.1

